

# 여성 베이비부머의 사회참여활동에 관한 질적 연구

A Qualitative Study of Social Participation among Female Baby Boomers

계명대학교 소비자정보학과  
교수 홍성희

Dept. of Consumer Information Studies, Keimyung University

Professor Hong, Sung-Hee

## 〈목 차〉

I. 서론	IV. 결과
II. 이론적 배경	V. 논의 및 결론
III. 연구방법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phenomenon of social participation among female baby boomers. The key research questions were asked in what kind of activities do female baby boomers engage as social participation? The in-depth interview was used with 11 female baby boomers who were born between 1955 to 1963. The interview text were analyzed by the qualitative study method.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most common type of social participation was having hobbies and leisure activities, and the other were participating in religious activities, learning activities, volunteer activities and on-line club activities. Second, social participation gave them meanings such as joy, satisfaction, and experiences of seeing the new world as well as opportunities to make up low sense of self-esteem formed in their young age. Third, they were considering it was time to change their social participation. The cases who were actively engaging in social participation considered old age as 'the process of reducing social participation'. Some other cases considered to 'share hobbies with spouse', and to 'achieve new goals and dreams'.

The results showed that female baby boomers started their social participation in their middle ages when they became free from their children's education. The level of the involvement in social participation was reduced in their old age. Surprisingly, some interviewees planned to accomplish their dreams and goals that they haven't achieved yet. These differences among the cases could be attributed to the individual characteristics such

as personality, birth order, economic and educational background, and to the social relationship.

Key Words : 여성 베이비부머(female baby boomers), 중년기(middle age), 사회참여활동 (social participation)

## I. 서론

우리나라의 베이비부머는 1955년부터 1963년 사이에 출생한 인구로, 베이비부머의 시작 연령인 1955년 출생자가 2010년 정년을 시작하는 55세에 이르면서 이들의 은퇴와 노후 삶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했다. 이들이 사회적으로 주목 받고 있는 이유는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4년 현재 약 14%로(통계청, 2014), 고령화 사회에서 기대수명의 연장으로 ‘100세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베이비부머에 대한 사회적, 학문적 관심은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다. 하나는 이들이 거대한 규모의 특정 코호트라는 접근과 다른 하나는 이들의 생애주기단계인 중년기에 초점을 두는 접근이다. 이 두 가지는 상호 연결되고 작용하면서 이들의 ‘현재’를 구성한다(한경혜, 2010).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관심은 은퇴와 재정적인 노후 대책, 노동시장의 변화, 국가의 재정문제 등 사회경제적 측면에 집중되어왔다(정경희 외, 2010; 조성숙·서훈, 2011; 강은나 외, 2012; 정순돌·박현주·오은정, 2013).

생애 과정에 있어서 중년기는 신체적 건강이 급격한 변화를 겪는 전환점이며, 생의 전반기부터 누적되어온 경험의 영향으로 건강 수준의 편차가 커지기 시작하는 시점이다(정순돌·김성원, 2013). 과거의 중년기 성인은 노부모를 돌보는 책임이 있으나 자녀부양이 끝나 경제적으로는 가장 소득이 높고 여유로운 시기이며 자신의 노년기 삶을 준비하는 과업을 가졌다. 그러나 최근 자녀들이 가정

떠나는 시기가 지연되어 성인자녀에 대한 부모역할 수행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여성연·고선강·조희금, 2010). 이는 중년기 성인이 노부모 돌봄과 자녀부양의 이중 책임을 지는 기간 또한 길어짐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중년기 성인의 노후생활준비에 관한 연구들이 경제적 영역에 집중되어 온 것도 부모와 자녀세대 사이의 경제적 지원의 이중 부담과 관련이 있다(김순미·고선강, 2012). 중년기는 가장 생산적인 시기이면서 동시에 인생의 절정에서 과거를 바라보는 시기이며, 사회적 역할의 의미를 찾고 개인적인 삶의 의미와 가치를 재평가하며, 이를 통해 궁극적인 삶의 의미를 찾는 시기이다(김유정, 2009). 그러나 신체적 측면에서 기능 감소와 더불어 사회적 역할 상실 및 유대관계의 축소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삶에 대한 만족이 저하될 수 있으며(Whitbourne, 2001), 긴장과 위기감을 경험하는 시기이기도 하다(배문조, 2009).

특히 베이비붐 세대의 수명 증가, 출산율 감소, 여성의 교육수준 및 취업 증가 등이 가파르게 변화되면서 가족의 삶에서도 큰 변화를 경험해왔다. 즉, 부모 자녀의 관계 수명이 길어지게 되었고, 출산율 감소와 소자녀화로 자녀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킴과 동시에 부부관계의 중요성을 증가시켰다. 그러므로 베이비붐 세대가 속해있는 중년기는 가족관계에 있어 새로운 전환이 필요한 시기로, 자녀양육을 중심으로 한 부모역할에서 부부관계를 중심으로 한 남편, 아내역할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가족생활주기 측면에서는 ‘빈 등지 시기’에 해당되어 상실감과 함께 가족관계의 의미가 새롭게 부각되는 시기이다(홍성희·곽인숙, 2014). 이러한 가족

의 변화 속에서 여성 베이비부머는 새로운 경험을 중심으로 새로운 가족규범을 창출하기 시작한 세대로, 남성과 또 다른 이질성을 가지고 있다(한경혜, 2010). 그러나 지금까지의 논의는 주로 남성의 일, 은퇴, 소득, 부양자 역할 등에 치중되어 온 결과 여성 베이비부머의 삶은 조명되지 않았다. 노후를 앞둔 남성 베이비부머의 삶이 일과 일에서 은퇴한 이후를 기점으로 논의되는 것과 달리 일하지 않는 여성 베이비부머의 삶은 일 또는 은퇴와 무관하게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수 있으며, 남성 베이비부머와 다른 특성을 보일 것이다. 그러므로 중년기 여성 베이비부머의 삶은 일과 직장 이외에 어떤 활동으로 구성되며 노후를 앞둔 시점에서 일상적 활동의 구조는 어떠한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여성 베이비부머의 삶 중에서도 사회참여에 주목하고자 한다. 사회참여는 여성 베이비부머가 매일의 생활에서 자유의사로 선택하는 활동으로 개인에 따른 다양성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가족 및 타인과 갖는 사회적 관계, 그리고 집단 또는 지역사회에 참여하면서 형성시키는 사회적 교류로 중요할 뿐 만 아니라 노년기에 대비한 사회적 자본으로서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성 베이비부머의 사회참여는 이들이 중년기를 어떻게 보내고 있으며 앞으로 맞게 될 노년기에 대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를 파악할 수 있는 의의를 갖는다. 본 연구에서는 여성 베이비부머가 중년기 삶에서 경험하는 사회참여에 접근하여 이들의 사회참여가 시작되고 구체적인 활동으로 정착되는 과정을 분석하며, 사회참여활동을 통해 얻는 의미와 본질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 결과는 여성 베이비부머가 거대한 인구 코호트로서 보여주는 사회참여의 일상성 또는 다른 세대 및 남성 베이비부머와의 차이를 밝혀줄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여성 베이비부머 개인의 인적자본 및 경제적 자본의 관리와 배분, 사회적 자본의 관련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다. 노년기를 전후로 인적, 경제적 자본

의 양과 질이 급격히 변화, 감소하는 상황에서 사회적 자본이 이를 대체하고 보완할 수 있다면 노년기를 앞두고 있는 여성 베이비부머의 삶의 질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II. 이론적 배경

### 1.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사회참여

사회적 자본은 사회나 개인과의 관계에 따라 생성되는 자원(Bourdieu, 1986; Coleman, 1988; Lochner et al., 1999; Portes, 1998; Costa & Kahn, 2001; Burt, 2007; 장유미, 2011)으로, 사회 구조 속에서 개인들이 맺는 관계에 내재하는 자원임과 동시에 타 자원을 획득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Newton, 1997).

사회적 자본 연구에서 노년기의 사회참여가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있다. 지속적인 사회참여는 노년기에 보편적으로 가능한 생산적 활동의 한 형태이기 때문이다. 노인의 사회참여 중 자원봉사활동이 노년기 네트워크의 감소를 대체하면서 사회적 자본을 증가시키고(Isham et al., 2006), 여가활동도 사회적 자본을 확장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신창식·최수일, 2010). 이처럼 사회참여활동은 그 자체로서 사회적 자본의 역할을 할 뿐 아니라 네트워크 확대와 신뢰 구축 등 다른 사회적 자본을 증가시키는 기회를 제공한다. 나아가 노년기의 사회참여활동은 신체적 건강과 정신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이홍직, 2009), 가족이나 친척, 친구와 관계를 갖거나 종교모임, 자원봉사, 여가·문화 모임과 같은 사회적 활동을 하는 노인의 삶의 질이 고립형의 노인에 비해 높은 것으로 보고되면서(강현정, 2012; 강소량 외, 2012; Mammen et al., 2009; Vemuri et al., 2011) 삶의 질 향상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회참여에 대한 지속이론에서는 중년기에 수행했던 사회참여에 초점을 맞추어 노년기에도 중년

기와 비슷한 역할을 지속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활동이론 또한 중년기의 라이프스타일을 유지하는 것이 노년기의 사회적 고립을 최소화시키는 것으로 보고 있다. 즉, 개인이 중년기 삶의 과정 속에서 자신에게 유용했던 사회참여활동을 노년기에도 선택하므로 중년기의 사회참여가 노후의 사회참여를 유도하는 중요한 경험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베이비부머의 사회적 자본을 분석한 정순들과 성민현(2012)은 베이비부머를 포함한 45~64세 집단의 사회참여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즉, 가족·친구·이웃 관련 활동이나 단체활동에 참여를 많이 할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았다. 연령집단에 따라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자본의 유형과 그 영향정도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 45~64세 집단에서는 사회참여가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었다. 즉, 45~64세 집단은 20~44세 집단 및 65세 이상 집단에 비해 직장, 친목모임 등의 사회활동이 잦아지면서 사회참여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사회참여에 대한 연구 분야에 따라 연구자들이 사용한 개념과 유형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다소 차이를 보인다. Hsu(2007)은 사회참여를 공공, 사회적 집단, 친구 및 가족들과 공유하는 다양한 활동으로 정의하였고, 정순들과 성민현(2012)은 사회참여를 개인의 가족이나 친구 집단 등 비공식적 수준에서의 참여와 지역사회, 단체 차원에서의 참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았다. Ingen(2008)은 사회참여활동에 가족과의 방문 및 초대 포함시켜 공식적 사회참여, 가족 간 비공식적 사회참여, 가족 이외의 비공식적 사회참여 및 사회적 접촉의 네 가지로 구분하였다. 김주현(2009)은 취업활동과 자원봉사활동, 가족 및 친지에 대한 비공식적 지원활동, 학습활동, 종교활동, 사회단체 활동 등을 다루고 있다. 김종인과 김운정(2013)은 이처럼 경제적 활동, 자원봉사활동, 여가활동 등을 포괄하는 사회참여의 개념에 대해 유급과 무급의

활동, 단체활동과 개인활동을 구분하지 않았으며, 일부 연구는 자원봉사활동, 여가활동 등 한 두 유형만 다룬 것을 문제로 지적하면서 사회참여를 2인 이상의 공식적·비공식적 단체에서의 참여활동으로서, 가족활동을 제외한 경제활동, 자원봉사, 여가활동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사회참여를 가족을 포함한 친구와 공유하는 활동 및 사회적 집단, 공공 참여 등 다양한 활동으로 개념화 하고 있다. 또 사회참여가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역할을 수행하는 활동으로서 사회적, 경제적, 조직적 성격이 포괄되는 광범위한 유형으로 보고 있다.

## 2. 여성 베이비부머의 집단적 특성

베이비부머의 은퇴가 시작되었던 2010년을 앞두고 은퇴와 관련한 연구들이 다각적으로 진행되었다. 베이비부머의 은퇴에 따른 노동시장의 변화 및 준비를 다룬 연구들을 살펴보면, 베이비부머는 산업화의 성과를 향유한 계층임과 동시에 외환위기의 영향을 직접 겪으면서 불안정한 근로생애사를 겪어왔고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의 퇴직 시점이 빨라 재취업해야 하며, 재취업 조건도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방하남 외, 2010). 따라서 상당한 수준의 고용불안을 느끼고 있다(장지연 외, 2009).

베이비부머가 속해 있는 중년기는 일반적으로 부부관계의 만족도가 낮아지는 시기로, 신연희 외(2010)는 베이비부머의 부부갈등 발생빈도가 심각한 수준이며, 10년 후 부부관계 유지에 대해 상당히 회의적으로 보고하였다. 그런데 부부갈등의 주된 이유가 경제적 갈등으로 나타남으로써, 은퇴와 재정적 문제, 가족문제가 서로 연관되는 것으로 보았다. 또한 남녀 베이비부머의 사고 및 태도에도 격차가 있어 노년기 부부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지적하였다. 한편 남순현과 김미혜(2014)는 베이비부머 부부가 여가 중심 라이프스타일을 가지고 있으며, 부부가 여가활동을 함께 할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했다. 중년기는 사회참여가 절정에 달하는 시기이므로 의미 있는 여가활동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2008년 고령화연구패널조사 자료를 사용해 베이비부머세대와 이전세대의 가계경제구조를 비교한 서지원(2012)은 베이비부머세대는 이전세대와는 다른 가계경제구조와 경제적 만족도 결정요인, 경제적 자원배분의향을 보인다고 보고했다. 베이비부머세대는 이전 세대에 비해 가구소득, 소비지출, 저축 모두 약 2배 수준으로 높았으나, 총자산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베이비부머세대가 이전 세대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가구부채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소득은 높으나 지출과 부채 규모 역시 크고, 자산규모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이다. 정호성 외(2010)는 베이비부머의 자산이 부동산에 치중되어 있는 구조를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아날로그 시대에 교육을 받았지만 사회생활을 하면서 디지털 시대를 맞이한 베이비붐 세대는 아날로그와 디지털 생활방식 모두를 경험한 ‘중간 세대’이다. 이들은 온라인상에서 정보검색이나 회원가입, 이메일 등과 같은 정보 이용, 생산 및 교류 등 디지털 생활방식을 취하고 있지만 온라인상의 교체, 여가생활, 사회참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아날로그 식 생활양식에 익숙해있다(차성란, 2012). 그러나 베이비붐 세대는 이전 노인세대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은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을 바탕으로 노후생활에서 여가에 대한 인식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노년의 삶을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자 자기실현을 이룰 시기로 보고 있다(신호창·노형신, 2010)는 점은 이들의 사회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여성 베이비부머의 특성을 볼 수 있는 연구로서 조영희(2011)는 경제활동실태를 집중적으로 조사하였다. 경제활동참가율을 혼인상태별로 비교했을 때 여성베이비부머의 유배우율이 60.8%로 남성베이비부머 93.2%보다 현저히 낮으며, 교육수준별로는 대학원졸 이상자가 76.7%로 가장 높고, 다음으

로 초졸 이하(66.8%)와 중졸(66.4%)의 순으로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았다. 주목할 만한 것은 대졸 여성베이비부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4.1%로 가장 낮다는 점이다(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09; 김영란 외, 2010 재인용). 또한 여성은 경력 단절 후 비취업상태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았다. 결국 학력이 낮으며, 사별이나 이혼한 여성 베이비부머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다는 점은 남성가장이 부재할 때 여성이 생계를 부양함을 보여준다. 또한 여성 베이비부머의 국민연금가입률은 45.2%로, 80.5%인 남성의 거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며, 다수의 여성베이비부머는 남성가장의 소득과 연금에 의존하고 있어 현재 여성노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답습할 경향이 크다고 지적하였다.

현재 베이비부머는 대부분 중년층에 해당되나 신체적 능력과 건강상태를 점차로 상실하는 노년기에 서서히 다가가고 있으며(정순돌, 김성원, 2013), 베이비부머 여성의 건강상태가 남성보다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건강 평가에서 여성들은 자신의 건강에 대해 더 부정적으로 평가하였고, 정신건강도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경혜 외, 2003). 여성의 만성질환이나 우울증 비율 또한 남성보다 높았다(김주현, 2009).

정경희 외(2011)는 베이비 부머의 삶의 다양성을 분석한 결과 남녀의 삶의 유형에 큰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전반적으로 여성 베이비부머가 남성 베이비부머에 비해 자녀나 부모와의 접촉 및 부양의 교환을 활발하게 하고 있어 노후에도 사회적 자본을 많이 가질 것으로 전망되었다. 건강행위 역시 여성의 실천율이 더 높지만 우울증도 더 많이 가지고 있었다. 경제적 상태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또한 성에 따라 차이를 보였는데, 남자는 소득과 고용상의 안정성 및 독자성이 모두 확보된 유형의 삶의 질이 모든 측면에서 가장 높은 반면 여자의 경우 소득의 안정성과 더불어 경제활동에 따른 시간 압박 등을 경험하지 않은 유형, 즉 임시직 또는 일용직 임금근로자이거나 경제활동경험이 없

는 여성집단이 비교적 더 높은 삶의 질을 영위하고 있었다. 이 집단의 여성 베이비부머는 상대적으로 친구가 많았는데, 여자의 관계중심성과 소득 및 시간의 여유가 동시에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비교적 활발한 여가생활 및 사회참여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소득을 바탕으로 자원봉사활동에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참여하고, 배우자의 중요성 인식 정도가 다른 유형보다 높았다. 정순돌 외(2013)의 연구 역시 이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준다. 베이비부머의 성별은 희망하는 노후생활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일중심형과 다른 두 유형, 즉 여가활동형 및 자원봉사형을 구분하는 주요 변수였다. 여성은 은퇴 후에 일보다 자원봉사 또는 여가활동에 참여하고 싶어 하는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여성이 은퇴 후에 일 이외의 사회참여를 희망하는 경향이 큰 것에 대해 연구자들은 남성들이 일을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왔을 가능성이 큰 반면 자원봉사나 여가활동을 경험했을 가능성이 낮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하였다. 한동희(2014)는 45세 이상 64세 미만의 예비 여성노인과 65세 이상의 여성노인의 사회적 자본 비교 연구에서 사회공헌을 해야 하는 이유로 두 세대 모두 ‘노년의 삶의 의미’와 ‘지역사회 일원’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있는 한편 예비 여성노인은 ‘친구를 만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차이를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자원봉사활동의 금전적 보상에 대해 예비 여성노인은 여성노인과 달리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사회공헌의 선행 조건에 대해 여성노인은 정보를, 예비 여성노인은 ‘체계적인 교육’을 원하는 등 사회적 자본 인식에 차이를 보였다.

### 3. 선행연구

베이비부머 세대는 생활양식 측면에서 경제적으로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삶을 지향하고, 부부중심으로 노후를 보낼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높다. 정경희 외(2010)는 ‘베이비부머의 생활실태 및 복

지육구’조사 자료 중 베이비부머 3,027명의 사회참여를 분석한 결과 현재 삶에서 사회참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베이비부머는 69.4%이며, 참여 순위가 가장 높은 여가는 운동 관련 활동이었다. 단체활동 중 자원봉사 참여율은 7.3%로 낮으며, 정치단체 참여 또한 1.8%로 매우 소수였다. 그러나 43.9%의 베이비부머가 노후에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의향을 가지고 있으며, 교육수준이 높고,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남성보다 여성의 노후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의지가 높았다. 베이비부머의 성별과 종사상의 지위를 기준으로 4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네 집단이 공유하는 특징이 있는 동시에 유형별 차이가 나타났다. 베이비부머의 소득수준은 가족관계 및 친구관계 등의 사회적 관계와 바람직한 부부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배우자와 함께 하는 활동에 영향을 미쳤다. 또 성별에 따라 삶의 유형에 큰 차이가 있었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사회참여실태를 조사한 강현정(2012)에 의하면 소득활동, 자원봉사활동, 사회참여형 여가활동, 교육(배움)활동 중 자원봉사활동 참여율이 가장 저조했다. 그러나 자원봉사활동은 사회참여활동 중에서 사회통합감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변인이었다. 이는 자원봉사를 통해 사회에 기여를 했다는 심리적인 만족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하는 한편 예비노인인 베이비부머 세대의 사회통합을 위해 현재 노인복지정책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소득활동뿐 아니라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정책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남순현과 김미혜(2014)는 베이비부머 부부의 여가활동과 삶의 만족도의 관련성을 검증한 결과 여가중심 라이프스타일, 은퇴준비 인식, 은퇴준비 행위 및 부부 여가활동이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즉, 베이비부머가 여가중심 라이프스타일을 가질수록 은퇴준비에 대한 인식이 강하며, 현재 부부 여가활동에 적극 참여할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았다. 많은 선행연구에서 스포츠나 자원봉사

등의 여가중심 라이프스타일이 베이비붐세대의 건강(조운주, 2008; 김진영·송예리아, 2012)과 삶의 만족도(여미영, 2009)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보고하였다.

베이비부머의 자원봉사 및 기부활동 중심으로 사회적 자본 인식을 분석한 김지훈 외(2013)는 베이비부머의 사회적 자본에 대한 인식이 삶의 질과 사회적 자본 형성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긍정적인 삶의 질 또한 사회적 자본 형성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침으로써, 베이비부머들이 자신의 삶을 매개로 사회적 자본 형성 주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였다. 지속이론의 관점에서 베이비부머의 사회참여와 노후 사회참여의향의 관련성을 분석한 김종인과 김윤정(2013)의 연구에서는 현재 사회참여를 하고 있는 베이비붐 세대 노후에도 참여하려는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지속이론을 지지해주고 있다. 또한 현재 사회참여여부가 노후 사회참여의향의 가장 강력한 예측변인으로 나타남으로써 노후의 사회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중년기부터 사회참여 기회와 시간, 조건을 만들어내야 할 것으로 제안하였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절차

본 연구는 여성 베이비부머의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참여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여성 베이비부머의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참여는 어떤 것이며, 이들의 삶에서 사회참여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인식하고 있는가를 파악함으로써 이들이 중년기를 어떻게 보내고 있으며, 앞으로 맞게 될 노년기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1955년부터 1963년 사이에 출생한 여성 베이비부머인 11명을 대상으로 2016년 7월부터

10월까지 약 4개월 동안 심층면접을 진행하였다. 다양한 성장과정과 경험을 가진 대상자를 모집하기 위해 거주지역과 교육수준, 직업경험의 차이가 나는 사람들과 접촉을 시도했으나 교육과 소득수준의 다양성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최종적으로 선정된 심층면접 대상자들은 서울, 대구, 경기, 제주지역에 거주하며,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과 취업경험이 있고, 대체로 현재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는 여성 베이비부머이다. 대상자에게는 전화로 연구목적과 주제를 설명하고 녹음에 대한 동의를 구하였다. 심층면접은 대상자의 편의에 따라 집과 일터, 연구자의 연구실, 그리고 커피숍 등에서 진행되었으며, 다양한 사회적 참여활동을 하고 있어 화제가 풍부했던 2명의 대상자는 2회, 나머지 대상자는 1회의 면접을 진행하였다.

심층면접의 주요 주제는 여성베이비부머의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참여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주제를 이끌어내기 위한 질문은 첫째, 출생지 및 주 거주지, 성장과정과 학업, 결혼 전후의 가족관계, 취업경험 및 중단, 갈등, 그리고 사회참여 등 삶의 궤적에 관한 것이다. 이는 대상자의 개인적 특성과 전반적 삶에 대한 개괄적 이해를 목적으로 시도하였으나 면접과정에서 이들의 사회참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배경으로 작용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둘째, ‘현재 일상생활에서 어떤 사회참여를 하고 있는가?’의 개방형 질문으로, 누구와, 어떤 활동들을 하며, 그러한 사회참여가 자신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스스로 이야기를 구성해서 진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이들이 노년기를 앞둔 시점에서 삶에 대한 기대와 우려, 그리고 현재의 사회참여에 대한 전망과 의사를 질문하였다. 과거에 대한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대상자는 베이비부머로서 공감된 세대 의식을 표출하였고, 일부는 딸과 여성으로서의 차별적 지위와 한계 등을 토로하였다. 일부 대상자들은 사회참여에 대한 경험을 자연스럽게 어렸을 때의 가족 배경이나 자신의 성격, 성향 등과 연결시켜 설명하고

해석하는 논리를 보여주기도 했다.

면접내용을 녹음하면서 대상자의 특성 및 면접 상황에 대한 연구노트를 작성하였고, 이 내용은 다음 면접의 질문에 반영하였다. 연구의 엄격성을 위해 심층면접과정에서 중립성을 유지하고 사실적 가치에 의해 녹취록을 활용하도록 노력하였다. 녹음자료는 전사한 후 사례별로 어린 시절, 진학, 취업, 결혼 등 중요 사건과 사회참여에 해당되는 활동들을 연대기 순으로 재구성하였다. 심층면접내용은 질적연구방법에 의해 분석하였다. 질적연구방법은 각 사례의 세부적인 기술과 그 사례 내의 주요 주제들을 추출하는 사례 내 분석, 사례 간에 공통되는 주제 및 차이점을 찾는 분석을 거쳐 사례들의 의미에 대한 해석을 산출하는(조흥식 외 공역, 2010) 연구방법이다. 분석 결과는 첫째, 각 사례에 대한 기술을 바탕으로 여성베이비부머의 사회참여 활동에 대한 주요 주제를 뽑아내고 사례 간 공통점과 차이점을 서술하였다. 둘째, 사회참여활동과 관련된 현상의 의미와 전망을 추출하고, 셋째 해석과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 2. 연구참여자들의 특성

심층면접 대상자들은 베이비부머 세대 중 나이가 가장 적은 1963년생부터 가장 많은 1955년생까지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거주지는 서울과 대구광역시, 경기도, 제주도의 4개 지역이며, 출생 및 성장지는 서울, 경상남북도, 전라남북도 등 다양하다. 자녀수는 두 명을 둔 사례가 가장 많고, 5명의 사례가 각각 한 명의 자녀를 결혼시켰으며 4명의 사례는 아직 자녀의 대학 교육이 끝나지 않은 상태이다.

교육수준은 고졸 이상이며, 2명은 대학원을 졸업하고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다. <사례 1>과 <사례 2>는 각각 ‘남자형제들을 공부시켜야 하기 때문에’ 대학에 진학하지 못했다. <사례 1>은 고졸 후 취업해 결혼비용을 충당할 만큼 부모의 경제적 사

정을 이해하고 순응하는 착한 딸이었지만 아직까지 ‘많이 배운 사람 앞에서는 풀리는’ 자신이 ‘못 배워서 그렇다’는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 <사례 2> 역시 고교 졸업 후 농협에 다니면서 방송대학에 입학했지만 일과 병행하기 어려워 중간에 포기했다. 그녀는 배움에는 때가 있다고 생각한다. <사례 8>은 대학 입시에 불합격하자 언니의 초청으로 오스트리아의 대학에 진학해 약 10년간의 유학생생활을 했다. 유학기간 동안 부모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장학금과 아르바이트로 학비와 생활비를 조달했다. 그녀의 독립심은 농촌에서 태어난 그녀를 도시의 오빠 집으로 유학 보낸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시작된 것이다. 유학 중 결혼한 그녀는 아들을 양육하면서 학업을 계속하는 어려움을 겪었다. 그 과정이 순탄치 않아 남편과의 갈등이 심해졌으며 귀국 후 이혼을 하게 되었다. 대학 졸업 후 교사로 취업한 <사례 9>은 결혼 후 남편을 따라 제주로 이주하면서 퇴직하고 그동안 생각했던 대학원에 진학했다. 서울과 제주를 오가며 매일 학교에 나갈 수 없는 상황에서 박사과정을 시작했으나 출산과 남편을 따라 3년간의 미국생활로 학업이 늦어졌다. 학위 취득 후 대학에 자리를 잡으려는 기회가 번번이 좌절되면서 원하는 진로로 나가지 못한 아쉬움이 크다. 다른 사례들은 졸업 후 바로 사무직, 은행원, 교사 등으로 진출했다가 대부분 결혼과 출산으로 퇴직했다. <사례 2>는 시모와 동거하면서 아이의 양육을 맡기려고 했으나 남편의 반대로 퇴사했고, <사례 3> 역시 동거하던 시모가 양육을 거절하자 관계가 소원해졌다. <사례 5>는 교사로 재직하면서 출산 후 아이를 남에게 맡겼지만 아이의 잔병치레가 잦고 양육과 직업을 병행하기 어려워 1년 반 만에 퇴직했다. 그녀는 아들이 어느 정도 성장한 후 유학원 사무직, 방과 후 교실 강사 등으로 간간히 일해 왔으며 지금은 혼자서 작은 샌드위치점을 운영하고 있다. <사례 6>은 자녀성장기에 16년 간 개인지도 일을 해왔으나 두 딸을 중고등학교 시기에 각각 외국 유학을 보냈으므로 자녀교육과 병행



〈표 1〉 연구참여자의 특성

사례	출생년도	거주지(성장지)	자녀수 (결혼상태)	교육수준	현직유무 (직업경험)
1	1963	대구(경북)	1남 1녀(1녀 결혼)	고졸	무(사무직)
2	1961	" (경북)	2남	"	" (은행원)
3	1956	서울(서울)	2남	"	" (은행원)
4	1955	" (대전)	1남 1녀	"	" (사무직)
5	1958	" (경기)	1남(결혼)	대졸	자영업(교사)
6	1957	" (서울)	2녀(1녀 결혼)	"	무(개인교습)
7	1961	대구(경북)	2녀 1남	"	" (기술직)
8	1957	서울(전북/서울)	1남(결혼)	대학원졸	교수
9	1957	제주(전남/서울)	3녀	"	교사
10	1957	경기(서울)	1남 1녀(1녀 결혼)	대졸	무(교사)
11	1955	서울(경남)	2남	고졸	" (사무직)

하는데 어려움이 많지 않았다. <사례 7>은 긴 연애 끝에 결혼한 후 직장을 퇴사했으며, 시부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시모와 합가해 살면서 세 자녀를 두었다. 막내가 어린이집을 가게 되자 그녀는 영어와 중국어를 배우는데 시간을 활용했고, 새로운 것을 알게 될 때 기쁨과 희열을 느낀다고 할 정도로 호기심과 지적 욕구가 크다. <사례 10>은 교사로 재직하다가 육아를 대신 해주시던 친정어머니의 이사와 큰 아이의 초등학교 입학으로 병행이 어려워지자 퇴직했다. 2년 전 은퇴한 남편의 희망대로 강화로 이주해 전원생활을 하면서 지역사회의 시설에서 지원하는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사례 11>은 고등학교 졸업 후 3년 동안 직장생활을 하다 결혼했다. 그녀는 결혼생활에서 ‘큰 일이 없었다’고 할 만큼 평탄하게 살아왔으며, 남편이 전문직에 종사하기 때문에 은퇴나 노후생활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한동안 백화점 문화센터에서 하는 노래교실 등 프로그램을 찾아다녔으나 현재는 아파트 내에 설치된 휘트니스센터에서 매일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다.

## IV. 결과

### 1. 여성 베이비부머의 사회참여

연구참여자들은 현재 가족생활주기에서 중년기 후기에 해당되는 시기에 있다. 이들이 중년기의 일상생활에서 하고 있는 사회참여활동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며, 누구와 함께 하며, 그러한 사회참여가 자신에게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를 추출하였다.

#### (1) 취미 여가활동의 일상화

연구참여자들이 사회참여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은 그때 그때 유행하고 활성화되면서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취미활동, 여가활동이었다. 백화점 문화센터에서 주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좌로 한때 인기 있었던 노래교실을 비롯해 지역사회 복지시설, 문화회관, 종교기관, 사설 유료시설 등 다양한 곳에서 운영하는 영어, 컴퓨터, 스포츠 등이 가장 보편적으로 참여하는 활동(사례 1, 2, 4, 5, 7, 10, 11)이었다. 호기심이 강하고 적극적인 일부 연구참여자들은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무료

프로그램, 종교기관의 신자들을 위한 프로그램 등을 찾아다니며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활동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왔다(사례 1, 5, 7). 백화점에서 고객유지를 위해 문화센터라는 명목으로 개설하는 유료강좌를 시작으로 최근에는 각 지방자치단체, 도서관, 문화회관 등 지역사회시설에서 백화점 식으로 다양한 강좌를 운영하고 있어 정보만 있으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 강좌 운영방식도 다양화되어 특정 시설에서 강좌를 여는 방식 이외에 아파트 단지 내 주민 대상으로 개설하는 강좌를 지원해주기도 하므로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인의 적극적인 참여의사만 있으면 ‘찾아가는’ 것이든 ‘찾아오는’ 것이든 얼마든지 취미 여가활동을 할 수 있다. 반면 내향적이고 자신만의 특별한 취미를 찾지 못한 연구참여자들은 참여하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활동을 스스로 찾기도 보다는 친구의 권유에 따르거나 또는 친구와 ‘같이 하는’ 것에 의미를 두기도 한다. 이러한 경향은 많은 연구참여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활동인 운동에서도 나타난다. 이들은 현재 중년기를 지나 노년기로 접근하고 있는 연령대에 있으므로 대부분 건강을 위해 여러 가지 운동을 시도하고 있으나 그 중에서도 본인의 선택보다 주변의 평판이나 가족의 권유로 ‘건강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시작하거나 자신의 기호와 취향을 살리기 보다는 친구와 만나 시간을 보내는 한 방법으로 같은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다.

지금 화두는 건강인 것 같아요. 애들도 엄마 건강은 엄마가 챙겨야 한다고 자꾸 말하니까 ‘아, 지금은 건강이 최고구나.’ (사례 2)

민화를 하는 친구가 둘 있는데 크게 특별히 뛰어난 자질이 없어도 할 수 있더라고요. 저는 주변에서 하면 따라하게 되더라고요, 보통. (사례 11)

이들이 취미 여가활동을 시작했던 동기와 배경은 다소 다르지만 그동안 참여해온 취미 여가활동의 종류는 변화되고 있는 양상을 보였다. 한동안 인기 있는 강좌였던 노래교실 또는 컴퓨터교실 등은 이제 ‘찾는 사람이 없으며’, 최근에는 아파트 단지 내에 주민 공동시설로 스포츠센터를 짓는 추세이므로 입주주민들은 운동을 하기 위해 따로 스포츠센터를 갈 필요가 없다(사례 11). 이는 주민의 편의를 위해 아파트 단지 내 운동시설을 만들어 공용시설로 활용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특성을 보여준다. 한편 베이비부머 세대의 성장기에는 동네와 마을이라는 공간적 울타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웃이 형성되어 일상적으로 교류하고 사회적 관계를 만들어가는 ‘이웃사촌’이라는 개념이 존재했다. 그러나 이웃을 찾아보기 힘든 요즘 이들은 문화센터나 지역사회시설에 나가 취미여가활동을 하면서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시간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대상을 만들어가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처럼 전반적인 사회 변화, 그로 인한 취미여가활동의 다변화에 따라 개개인이 일상을 소일하기 위해 참여하는 방식과 유형이 달라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전에는 컴퓨터도 배우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아파트에 스포츠센터를 다니고 나서는 다른 취미 생활은 안하죠. 아파트 내에서 운동하고 요가하고.. 애들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노래교실도 했고, 백화점 문화센터에서... 요즘에는 노래교실 가는 사람들이 없어요 (사례 11)

역사관이라든지 문화회관이라든지 우리 아파트에서 무료로 생활 체험하는 거, 그런 길로 많이 보내죠. 그러면 많이 바빠요... 취미나 여가활동을 많이 찾아서 하려고 그러죠. 시간이 많으니까요. 왜냐면은 옛날같이 동네에서 친구가 잘 없잖아요. 백화점 문화센터라든지 종교 활동을 가야지만 대화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찾아가갈 수밖에 없죠. (사례 1)

중년기에 역할의 변화를 맞이한 연구참여자들은 자연스럽게 취미와 여가활동에 눈을 뜨게 되었다. 대부분의 사례는 활동 참여를 확대시켜 온 공통점을 보였다. 그러나 연구참여자에 따라 자발성과 적극성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즉, 시간적 여유를 의미 있는 활동으로 보내기 위해 새로운 것을 찾는 호기심과 지적 욕구 충족 위해 자신에게 맞는 활동을 찾아가는 적극적인 사례가 있는 한편 반대로 취미활동에서 흥미와 큰 의미를 느끼지는 않지만 중년기 건강을 위해, 또는 친구의 권유로 같이 하는 사례, 종교활동을 하면서 교우와 취미를 공유하는 사례, 여가를 봉사활동과 연결시킨 사례 등 취미 여가활동의 확대 과정과 현상에서 차이점이 나타났다.

## (2) 생활의 일부가 된 종교 활동

연구참여자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또 다른 출구는 종교 활동이었다. 종교를 가진 연구참여자들의 삶에는 종교가 씨실과 날실처럼 얽혀있었다. 예배나 미사에 참여하고 기도하러 가면서 종교적 가치와 경험을 공유하는 사람들과 깊은 인간관계가 형성된다. 또한 교우들과 같은 동네, 구역에 살기 때문에 자주 만나다 보면 운동이나 취미활동을 같이 하기도 하고, 친구를 만나듯 커피숍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쇼핑과 같은 일상생활을 같이 하는 관계로 발전되기도 한다. 일부의 종교기관은 신도들을 위해 복지관이나 문화센터처럼 여가활동장 좌를 운영하기 때문에 ‘놀이’, ‘사람을 만나러’ 가기도 한다. 즉, 종교기관이 사람들의 만남과 소통의 장소, 정보 교환과 공유의 매개체가 되고, 연구참여자들은 종교가 제공하는 많은 활동을 ‘직장생활 하듯이 바쁘게’, ‘재미있게’ 하면서 생활의 일부로 참여하고 있었다. ‘태어나서 제일 잘한 것이 천주교를 택한 것’이라고 할 만큼 종교를 생활화하고 있는 연구참여자(사례 3)는 성당 일을 자신의 살림처럼 하면서 갱년기를 잘 보낼 수 있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한다. 또 그때 같이 활

동했던 교우들은 같은 동네에 살며 같은 성당에서 ‘끝까지 같이 갈 것 같다’고 할 정도로 인생의 일정 시점과 공간을 공유하면서 자신이 추구했던 종교적 가치에 의미를 더해주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종교에 대한 몰입도가 높은 만큼 애로사항이나 속상했던 경험도 많았다. 자신의 뜻이 교우들에게 다르게 보여지거나 자신이 지향했던 종교활동과 다르게 일이 흘러가는 것을 보면서 회의감을 느끼고 이제는 성당에서 맡은 일을 끝내면 미사와 기도에 충실한 종교생활로 비중을 축소시키려고 생각한다.

기도도 하면서 거기서 여가 활동. 요가라든지 풍물놀이, 봉사활동도 있어요... 종교만 하는 거면 너무 허전한 거예요...우리 아파트에 어떤 분은 (교회에서) 일요일에 밥을 먹고 뭔가를 만들고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애는 약기를 다루고, 아빠는 다른 거 하시고 집에 오더라고요. 요즘 종교가 그런 식으로 커뮤니케이션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다양하게. 옛날 종교는 기도만 하고 오는 건데, 요즘은 거기서 모이기도 하고 공통점을 찾기도 하고 정보도 교환하기도 하더라고요. (사례 1)

우리가 열심히 종교활동을 할 때가 갱년기 때였는데 너무 잘 했다고 저희가 큰 본당에 있다가 작은 본당으로 나왔거든요. 할 일이 너무 많았어요. 하다못해 남대문 시장에 가서 그릇도 사야하고, 식탁보도 맞추러 가고, 그런 활동을 했으니까 다들 갱년기도 잘 보냈다고 이야기를 해요. 어려운 시기에, 40대 후반부터 50대가 힘들잖아요. (사례 3)

## (3) 학습형 교육참여활동

일부 연구참여자들은 시간적, 정신적 여유를 흥미 위주의 단기성 취미활동보다는 한 가지를 장기간 동안 배우는 학습활동으로 보냈다. <사례 1>은 다니던 절에서 개설한 부모교육강좌에 참여하면서 청소년기 자녀를 이해하고 소통하면서 ‘자신을 내려놓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다. 또한 남편의 성향

이 자신과는 ‘정반대’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나서부터는 남편의 성격을 이해하고 자신의 태도를 고치려고 노력하게 된 변화를 경험한 것도 큰 수확이었다. 그녀는 시간을 소일하는 취미생활이나 친구들과 사소한 일상을 나누는 인간관계보다는 절에서 듣는 강좌들이 ‘인격적 완성’에 도움이 되고 ‘수양’이 된다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강한 ‘호기심’과 ‘지적 욕구’를 가진 연구참여자들이 꾸준히 학습에 참여하는 경향을 보였다. <사례 5>는 4년 간의 성당교육, 실무 영어, 소설 강좌 등 중년기를 통해 ‘끊임 없이 뭔가를 배웠던’ 다양한 학습활동에 참여해왔으며, 다양한 학습경험은 코이카 해외봉사로 연결되기도 했다. <사례 7>은 세 자녀를 키우면서도 꾸준히 학원에 나가 외국어를 공부하면서 원어민 강사의 출신 지역의 역사, 문화적 배경까지 섭렵하는 학구적인 열의와 호기심을 보였다(사례 7). 이들은 새로운 것을 배울 때 ‘새로운 세계를 만난’ 것 같아 ‘기쁘고’, ‘희열을 느끼며’, 좋아하는 것을 경험할 때 ‘나다운 삶’, ‘사는 것’을 느낀다. 이들은 아내와 엄마의 역할 부담이 줄어들고 삶을 돌아볼 여유를 가지게 되자 자신을 위해 살고 싶은 욕구를 떠올리게 된 것이다. 즉, 한 인간으로서 독립적인 삶을 추구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 대상을 선택하는 개인적 성향과 자질이 남 다르게 강하며, 이를 행동으로 옮기는 적극성 또한 강하게 표출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 험담하고 애들, 남편 이야기.. 명품이니 그런 이야기들...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제 성향 상 올곧은 말을 하는 걸 좋아해서 그런지, 거기(절) 가면 ‘바르게 살아라’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어떻게 해야지 내가 사람답다든지 그런 걸 알려주는 곳이니까, 뭔가를 얻고 수업을 받는다는 느낌을 받는 곳이잖아요. (사례 1)

처음에 문화센터에서... 몇 달 하다가 ‘정식으로 해보자’ 그래서 진짜 영어학원을 가게 됐어요... 참

좋았던 점이 오시는 쌤이... 뉴욕에서도 오시고, 뫼.. 저기 남아공에서도 오시고.. 다양한 선생님들 만날 수 있었어요. 남아공에서 오시면 남아공에 관련된 책을 도서관에 가서 좀 빌려보고, 나도.. 그 사람에게 대해서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때 일로 유대인 오천년사, 글, 책들... 도서관을 좀 많이 다녔어요. (사례 7)

#### (4) 내적 또는 외적 동기에 의한 봉사활동

연구참여자들은 지금까지 가족을 위해 헌신했던 삶에서 가족 외부로 관심을 돌려 타인을 위한 봉사활동을 실천하고 있거나 앞으로 참여할 의향을 가지고 있었다. 현재 이들이 하고 있는 봉사활동은 종교활동과 관련된 경우가 많았다. 즉 자신이 다니는 종교기관에서 일손과 역할 분담을 필요로 할 때 관여하는 형태이다. 예를 들면 이들은 성경공부 리더, 주일학교 교사, 행사 진행 도움 등을 정기적, 비정기적으로 하고 있다. <사례 1>은 다니는 절에서 신도들의 복지를 위해 홍삼을 판매하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홍삼을 이는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시음을 권하는 일이 너무 재미있다는 그녀는 매뉴얼과 다른 방식으로 제조해보기도 하면서 자신의 ‘마음대로 개발하는’ 일이 호기심을 발동시키고, 새로 제조한 것이 ‘더 맛있다’는 주변의 반응에서 성취감을 느끼기도 한다. 한 여름의 더위에도 아이디어를 내어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는’ 노력은 ‘누가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만족하기 위해서 하는’ 내적 동기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사례 5>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해외봉사단원으로 1년간 우즈베키스탄에서 교사로 봉사한 독특한 경험이 있다. 외국계 장학재단에서 문서업무와 한국어 교육을 5년 간 담당했던 그녀는 한국어 강사로 취업을 모색하던 중 코이카 해외봉사단원에 지원했다. 영어 교사, 한국어 강사 등의 경력과 다양한 문화활동에 참여했던 감수성이 축적되어 외국에서 한국문화를 알리고 자신도 다른 문화를 접하게 된 그때의 경험을 ‘인생에서 자유로웠

던 시간'으로 기억하고 있다. 이들은 봉사활동을 통해 자신도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성취감과 용기를 얻을 수 있었다는 의미를 부여했다. <사례 2>는 현재 봉사활동을 하고 있지는 않으나 시간이 많기 때문에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중이다. 자신은 생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성향은 아니라고 말하는 그녀는 앞으로 시간적 여유가 더 많아질 것이므로 봉사활동을 시작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런데 그녀가 봉사활동을 '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데에는 어느 정도 시간적, 경제적 여유를 가진 사람들의 봉사와 나눔을 당연시 하는 최근의 사회적 인식과 분위기가 일종의 부담과 압력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 즉, 봉사활동 참여와 방식을 '하고 싶다'는 개인적인 의사와 내적 동기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외적 동기에 의해 유도되거나, 많은 시간을 큰 의미 없는 활동으로 소일하기 보다는 사회를 위해서 무엇인가 '해야 하는' 도덕적 의식이나 책임감에 의해 수동적으로 참여할 우려가 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이 사비로 도서관을 세우셨던 거예요... 도서관에서 행사 있으면 가서 도와주고 그런 거죠. 여기 행사는 거의 다, 도서관이니까 책에 관련된 행사가 많아요. 책 읽는 거나 문학 감상, 작가들이 와서 같이 읽고, 감상문 이야기하고 그런 것도 있고... (사례 4)

코이카... 내 인생의 자유로운 시간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게 아주 뜻밖이었고... (사례 5)

#### (5) 온라인으로 확장된 동호회 활동

기존의 동호회가 일정 집단이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만나 취미 여가활동이나 공통된 관심사를 공유하는 것이라면 최근에는 인터넷의 활성화로 그 방식과 범위가 매우 확대되고 있다. <사례 8>은 오랜 유학생생활에서 귀국한 후 이혼과 낯선 지역, 첫 직장에서의 적응과 갈등으로 힘들었던 시기에 오

랜 취미생활이었던 음악 감상을 온라인 동호회 활동으로 하면서 위안을 얻을 수 있었다. 온라인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맺은 '인간관계' 또한 활동을 지속하게 한 중요한 요인이 되었으며, 자신이 접해보지 못한 '세상을 보는' 기회도 되었다. <사례 7> 역시 '빈 등지 증후군'으로 겪었던 우울을 해소하는데 인터넷 글쓰기 카페라는 새로운 활동이 도움이 되었다. 그녀는 다양한 지역의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글쓰기'라는 한 가지 관심사를 매개로 온라인에서 모여질 수 있다는 것 자체로 '새로운 경험'이며, '디지털 세상의 혜택'이라고 생각한다. 글을 쓰고 댓글을 달면서 어릴 적 친구들처럼 익숙한 사람들이나 문화센터와 같이 현실세계에서 만나는 사람들 뿐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새로운 인간관계'가 형성될 수 있음을 실감하고 있다. 더구나 온라인 활동이 오프라인 모임으로 발전되면서 인터넷 카페를 통해 만난 사람들과도 건전하고 진솔한 모임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한 것에 매우 만족하고 있다. 이처럼 <사례 7>과 <사례 8>은 인터넷을 통한 동호회 활동이 중장년층에게 새로운 취미활동 영역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청장년기까지의 취미 활동은 시공간을 공유해야 하므로 동일한 현실세계를 전제로 하는 것이었다. 특히 동호회는 같은 기호와 취미를 공유하는 것이므로 매우 동질적이고 폐쇄적인 집단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같은 지역 또는 비슷한 연령과 배경을 가진 인간관계 내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디지털 시대에는 시공간을 넘나드는 만남과 결속이 형성될 수 있으므로 취미 활동이나 관심사를 쉽게 탐색하고 참여할 수 있고, 나아가 이를 통한 인간관계와 지지 또한 자유로이 새롭게 형성될 수 있는 것이다.

음악동호회가 나한테 굉장히 힘이 됐어요... 어떤.. 교우관계,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던 것 같아요. 그 양반들하고 나눴던 그런.. 뭐 꼭 음악 얘기만 하는 거는 아니니까, 그 중에는 목사님도 계시고, 연

구원도 있고, 의사도 있고 이런데, 어떨 때는 자기 회사 얘기도 할 때도 있고 하나까, 그게 어떤, 내가 세상을 보는 한 창구가 됐던 것 같아요. (사례 9)

어느 날 우연히 글을 하나 봤는데 찾아 들어간 게 지금 하는 카페예요... 재밌어요... 첨에는 약간 두려웠어요. 솔직히. 허구가 있잖아요. 글이랑 실체랑 다르니까... 멤버 중에 성악가가 있어요. 그분이 연주를 했어요 ‘구경 오라’ 그래서 가게 됐는데, 그때부터 오프가 발전된 거죠... 운이 좋았는지 너무 진솔하신 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카페를 통해서 만난 사람들도 좋은 친구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은 있어요. (사례 7)

## V. 논의 및 결론

### 1. 논의

#### 1) 여성베이비부머들은 어떤 사회참여활동을 하는가?

연구참여자들의 사회참여로는 취미여가활동이 보편화되어 있다고 할 만큼 여성베이비부머의 취미여가활동이 일상화되어 있었다. 또한 종교를 가진 참여자들은 종교활동 뿐 아니라 취미, 봉사활동을 같이 하면서 생활의 많은 부분을 공유할 만큼 종교활동을 광범위하게 확대시키고 있었다. 그러므로 연구참여자들은 다양한 사회참여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현재 사회참여는 단기간에 형성된 것이 아니라 중년기 진입 이후로 시작되어 여러 가지 활동을 시도하는 과정을 거쳐 현재의 상태에 이르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참여자들은 현재 중년기 후반에 해당되지만 이들의 사회참여는 가사노동과 자녀양육의 부담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 중년기에 들어서는 시기에 시작되었다. 자녀들

이 엄마의 보살핌을 필요로 하지 않을 정도로 ‘다 컸고’, 대학생이 되면서 더 이상 자녀교육에 시간과 관심을 쏟지 않아도 되거나, 다른 지역 또는 외국의 대학에 진학해 독립하면서 ‘시간이 많아지자’ 오히려 ‘허무함’을 느끼고 ‘빈 등지 증후군’으로 우울증을 경험하기도 했다. 그러므로 가족생활주기의 변화로 인해 생긴 여유시간을 사회적 활동과 사회적 교류에 보내게 된 것이다. 지금까지 이들은 그때 그때 유행하는 활동을 찾아다니고 배우는 일로 취미와 여가활동을 넓히는 과정을 거쳐 오면서 자신이 좋아하고 재미있어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사례 5>는 이러한 사회참여의 시작과 확대, 그리고 성과의 과정을 잘 보여준다. 그녀는 중년기의 여유 있는 ‘시간적 기반’에서 사회참여에 눈을 돌리게 되면서 좋아하는 공연을 보기 위해 비용을 ‘과감히 투자하고’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찾아가는 열정을 보였다. 이러한 적극적 시도를 통해 그동안 자신도 몰랐던, 잠재되어 있던 문화에 대한 강한 열망과 ‘끼’를 알게 되었다. 자신의 정체성을 찾은 그녀는 활발한 문화활동과 학습, 종교, 봉사활동 등으로 사회참여의 폭을 넓혀가면서 풍부한 삶과 넓은 인간관계를 발전시켜왔다. 그동안 활발한 사회참여활동을 통해 다양한 관심사와 개성화된 욕구를 충족시킨 것이다.

#### 2) 여성베이비부머의 사회참여의 의미는 무엇인가?

<사례 7>은 새로운 것을 배우고 알아갈 때 가장 삶의 희열과 만족감을 느낄 만큼 ‘늘 같은’ 가정환경에서 나와 ‘다른’ 환경을 접하고 ‘신세계’를 보는 것 같은 의미를 느낄 수 있었다. <사례 5>는 적극적인 사회참여과정에서 자신에게 남달리 ‘나를 찾고자 하는 욕구’가 있으며,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활동을 할 때 ‘자신의 모습을 찾았다’는 의미를 부여했다. 지적 욕구에 대한 열정은 학구적인 사회참여, 예를 들면 막내 아이가 유아원에 다니면서 시작한 외국어를 최근까지 꾸준히 배우고(사례

7), 4년간 성당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유형(사례 5)으로 나타난다. 다른 사례들이 중년의 여유를 가벼운 취미와 여가로 소일하는 것에 비해 이들은 새로운 것을 배우고 호기심을 자극하는 근본적인 욕구 충족에 투자하는 것이다. <사례 5>는 연구참여자 중 유일하게 1년간 해외봉사를 했던 경험이 있다. 그동안 수강했던 문화 강좌, 교사 경력, 종교 활동 등에서 농축된 지식과 경험이 한국문화를 가르치는 해외봉사의 바탕이 되었지만(사례 5) 51세의 나이에 20대 청년들과 같이 체력훈련을 받았던 ‘나를 찾는’ 강한 욕구의 배경을 스스로 성장과정에서 찾아냈다. 넉넉하지 않았던 가정형편과 6형제 중 네 번째로 ‘위, 아래에 끼어 있어’ 존재감이 없었던 그녀는 자신이 좋아하는 것조차 몰랐다가 중년에 이르러서야 자신의 성향과 기호를 파악하게 되자 자신의 기호를 매우 열정적으로 추구해가고 있다. 위, 아래로 남자형제를 둔 사례(1, 2)의 경우 형제 순위의 영향이 더욱 강하게 작용했다. <사례 1>이 절에서 하는 교육 프로그램 참여와 배움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 배경에는 대학에 진학하지 못했던 학력에 대한 콤플렉스가 있다. 아버지가 농촌의 말단 공무원인 가정에서 오빠와 남동생 사이에 출생한 그녀는 간신히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었다. 그때는 부모의 경제적 상황을 이해하고 아들을 우선으로 교육시키는 집안 분위기에 순응하는 착한 딸이었지만 대학 진학의 좌절과 아쉬움으로 지금도 항상 많이 배운 사람 앞에서 자신감을 잃는다. 이러한 낮은 자존감은 중년기에 들어서자 강한 배움 욕구로 나타난다. 청소년기에 억눌렸던 자아가 자신에게 시간과 에너지를 집중시킬 수 있는 중년기에 이르면서 싹튼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에게 사회참여는 그동안 자각하지 못했던 자신의 소질과 발휘되지 못했던 좌절감, 박탈감 등을 만회하고 해소시킬 수 있는 기회로 의미를 갖는다.

공연, 음악회, 영화도 어느 순간 ‘봐야겠다’고 생각하면 1순위가 되는 거예요. 지적인, 문화적인 욕

구, 그런 게 발휘될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 같아요. 호기심, 그리고 잠재되어 있는 열망? ‘사는 게 바로 이거야’ 이런 생각을 이런 활동을 통해서 해소 또는 찾는 거 같아요... (사례 5)

### 3)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베이비부머 세대인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이 성장했던 시기와는 매우 다르게 변화하는 사회문화적 환경과 의식을 가장 격렬하게 겪으면서 이들의 사회참여 또한 그동안 변화되어 왔으며, 그 변화는 진행 중이다.

첫째, 성격이 활발하고 외향적이며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해왔던 연구참여자들은 현재의 시점을 사회적 활동과 관계를 정리해야할 변화의 시점으로 보고 있다.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중심적 역할을 해왔고 ‘두루 두루 친한’ 좋은 관계를 유지했던 <사례 6>은 성격이 불분명한 모임이나 습관적으로 만났던 관계를 절제하고 정리하는 단계라고 생각한다. 그녀는 23년간 거주했던 대구에서 얼마 전 다시 주거주지를 서울로 옮기면서 동창들과 자주 만나고 새로운 취미생활을 하는 사회참여활동을 확대시켜 왔다. 그녀는 혼자 ‘집에 있기는 적적하고’, 자신이 ‘프로’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대한 궁금한 것’도 있고, 또 친구들을 만나 맛있는 것을 먹고 이야기하면서 얻는 재미도 ‘중독성’이 있어 운동이나 문화활동을 같이 하면서 좋은 에너지를 받을 수 있었다. 한편 모임과 관계에서 상처도 받으면서, 그리고 최근에는 건강과 체력의 한계를 감지하면서 ‘습관적’으로 참석했던 방식을 스스로 바꾸고자 한다. <사례 5> 역시 앞으로 사회참여의 범위를 ‘정리’하려는 생각을 표출했다. 그동안 다양한 일과 사회참여활동을 해온 그녀는 현재 가족, 친구, 교우와의 관계 뿐 아니라 운영하는 가게를 비롯한 지역사회, 종교활동이 서로 연관되어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과 관여하는 활동이 너무 많아 피곤함과 번잡함을 느끼고 있다. 자신의 관심사가 너무 많아 그동안 ‘별려놓았기’ 때문에

‘한 가지에 온전하게 집중하지 못한’ 것을 줄이고 ‘버리기 연습’을 할 때라는 것이다. 그동안 자신이 원했던 욕구와 활동을 끊임없이 추구했던 것이 초기, 중기 중년기의 모습이었다면 만 60세를 앞두고 있는 지금은 사회참여를 자신이 ‘진짜 좋아하는 시간’의 범위로 줄이면서 자족하는 삶을 사는 것으로 규정한 것이다. <사례 3>은 지금까지 몰두해온 종교활동과 그로부터 파생된 사회적 관계의 비중을 줄이고자 한다. 그녀는 ‘태어나서 제일 잘 한 것이 천주교를 택한 것’이라고 할 만큼 종교활동을 생활의 일부로 몰입하면서 교우들과 ‘식구 같이’ 친하게 지내왔지만 한편으로는 친교나 활동에 치중했던 자신의 신앙생활에 회의를 느끼고 삶에서 종교의 비중을 줄이려고 생각하고 있다. 이와 같이 활발하게 사회참여를 해왔던 사례들은 현재 시점을 자신이 일상적인 습관처럼, 그리고 형식적으로 참여했던 활동을 줄여서 자신의 내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유형과 규모로 정리하는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둘째, 사회참여활동의 범위와 정도를 축소시키려는 연구참여자들이 생각하는 변화의 방향은 축소된 사회참여를 부부 중심으로, 즉 사회참여의 유형 중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만남, 관계 유지로 회귀하는 것이다. 만 59세로 환갑을 앞두고 있는 일부 연구참여자들은 현재 사회참여를 축소시켜 나가면서 그 자리를 부부 중심으로 채우려는 생각을 표출하였다. <사례 6>은 앞으로 남편과 시간과 취미활동을 공유하는 삶을 그리고 있다. 자신에 비해 취미활동이나 교류의 폭이 좁은 남편에게 일 이외에 재미있는 활동들을 같이 하면서, 즐거움을 ‘공유하는 삶’을 누리려고 싶어 한다. 종교 활동을 줄이고자 하는 <사례 3> 또한 시간을 ‘남편과 공유하는 취미활동’에 많이 할애하려고 한다. 2년 전 은퇴한 남편은 열심히 모임에 나가고, 부부가 같이 종교활동을 하면서 교우들과 부부 동반의 모임과 취미활동을 하고 있지만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그녀는 남편과 공유할 수 있는 취미활동을 개발하려

고 한다. 남편의 은퇴 후 생활 변화에 맞춰 ‘웬지 그래야 할 것 같다’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 남편의 은퇴는 여성베이비부머의 일상을 전면적으로 바꾸어 놓기도 한다. 남편이 은퇴하기 오래 전부터 전원생활을 원했던 <사례 10>은 평생 살던 서울에서 강화도로 2년 전 이주했다. 그녀의 남편은 원래 농사에는 관심이 없고 낚시와 등산을 즐기려고 이주했으나 전셋집을 얻고 보니 잘 조성된 100평 정도의 텃밭에 재미를 느끼고 주변의 농원까지 매입해 250여 가지의 농작물을 가꾸고 있다. 그녀의 생활도 차츰 변화되어 초기보다 서울로 나가 친지를 만나는 횟수가 줄어들고 있으며, 귀농인을 위한 지역시설과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다. 이처럼 여성 베이비부머들은 일상생활에서 남편의 은퇴를 의식하고 사회참여를 재계획하는 등 영향을 받게 된다.

애들 아빠랑 공유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겠다는 생각이예요... 너무 워커홀릭이야... 근데 더 재미있는 것들이 많다는 걸 들어서 동시에 느끼면서 살고 싶어요. 예를 들어 여행이라든지 관심사도, 탁구를 치더라도 둘이 같은 걸 보고 같이 웃고 싶어요, 취미가 없다면 대화를 하든 뭘 하든 ‘세상에 재미있는 게 많네?’ 하고 같이 누리고 싶어요. (사례 6)

귀농인을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배우러 다니고... 여성센터 같은 곳, 농업기술센터 라는 게 있어요. 서초동에서 알아본 거는 한 달에 30만원인가 그랬는데, 여기서는 3만원에 배웠어요. 나라에서 지원을 되게 많이 해줘요. 전주에 초코파이, 그런 사람들이 직접 와서 가르쳐 줘요. 나라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명인들을 데려와서 해준다니까... 그런 식으로 서울에서는 못 누리는 걸 누린다니까요. (사례 10)

셋째, 중년기에서 노년기로 이행 중인 연구참여자들에게 지금이 새로운 성취에 도전하고 꿈을 마무리하려는 변화의 시기가 될 수 있다. <사례 9>는



전공분야의 책을 쓰고, 새로운 공부에 도전하려는 남다른 방식의 사회참여를 꿈꾸고 있다. 그녀는 은퇴를 2년 앞둔 교사로 좋아하는 일을 시작하기 위해 현재 명예퇴직을 신청한 상태이다. 그녀는 대학원에서 전공했던 분야를 마무리하는 작업으로 일반인들이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전공서적을 쓰려고 한다. 석박사 학위과정을 하면서 선배들과 공동연구를 하고 교과서를 집필했던 경험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과 공동으로 저술한다면 재미있게 작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그녀가 진심으로 하고 싶은 것은 철학 공부이다. 젊었을 때는 이해되지 않았던 철학 책들이 지금은 ‘눈에 들어오고’, 철학을 전공하는 ‘딸과 같이 하니까 더 재미있는’ 공부를 시작하려고 한다. 교사로 재직했던 그녀는 결혼으로 지역 이동을 하면서 퇴직, 대학원 진학과 휴학, 재취업 등 삶의 변화를 여러 번 겪어왔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가려고 했던 길’을 가지 못하고 좌절되었던, 그래서 항상 ‘언저리에 머물러 있던’ 삶의 배경이 있다. 어렵게 학위를 끝냈으나 원하는 진로로 진출하지 못한 것은 아직까지 그녀에게 채워지지 않은 미진함, 중심에 다가가지 못했던 아쉬움으로 남아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그녀는 다른 베이비부머와는 다른 방식으로 ‘가려고 했던 길’을 마무리하는 작업을 하고, 또 새로운 시작을 통해 꿈을 성취하려는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사례 5>는 50대 중반에 창업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근근이 유지해온 운영경험과 그동안 단골고객이 된 주변사람들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글쓰기를 준비하고 있다. 그녀가 강남도서관에서 제일 책을 많이 빌리는 사람 중에 속할 정도로 책을 많이 읽으며, 고민이 생겼을 때도 책 속에 빠지는 ‘도파’를 하면 조금씩 나아진다고 할 만큼 독서와 ‘소셜 강좌’ 수강, 신문사 기고 등 지금까지의 작업이 ‘꿈’을 위한 준비 과정이었다면 이제는 그동안 추구해온 다양한 활동들을 농축시켜 마무리하는 결실의 단계이다.

건축분야에는 재미있는 책이 정말 많아요. 화학 책도 너무 재미있게 풀어 써 놓은 거예요, 너무 읽고 싶게. 근본적으로 내가 했던 분야, 그거를 일반인들에게 알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 같아요... 책을 써 볼까 하는 생각?... 그 다음은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건데, ‘정말 재미있는 건 뭘까?’ 생각해 보니까 둘째는 철학을 시켰잖아요? 나는 그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철학 공부를 조금 해볼까 그런 생각, 철학적인 삶이 너무 좋아요... 그건 해보고 싶어요. (사례 9)

(운영이 어려워) 고전할 때도 많았어요. 그래서 과연 계속해야하는 건지, 멈춰야 하는지 갈등이 있었어요... 막상 그만두려 해도 애착이 많더라고. 내려 놓아야 할 때 내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뭔지.. 그래서 계속 하게 됐어요... 내가 책을 좋아하잖아요. 이걸 1-2년 후에 접으면 여기서 사람을 만나고 나를 컨트롤 했던 걸 반쯤으로 글을 쓸 거예요. 그게 꿈이에요... 우리 가족사를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만났던 사람을 모티브로 해서 뭔가를 하고 싶어요. 끊임없이 메모를 해요, 매일매일. (사례 5)

## 2. 결론

여성베이비부머의 사회참여에 대한 결과와 논의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여성 베이비부머의 사회참여의 동기와 참여했던 유형, 그로부터 얻었던 의미는 개인적 특성 및 성장배경과 관련이 있다. 소극적이고 내향적인 성향의 연구참여자들은 주로 소일형 취미 여가활동에 참여하였으며, 그 동기 또한 자신의 기호에 맞는 것을 찾고 충족시키기 보다는 일반적으로 평판이 좋거나 건강을 위해 좋을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자신이 특별히 좋아하는 것이나 잘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친구들이 하는 것을 따라 하거나 1주일에 네 다섯 번을 만날 정

도로 가까운 친구와 이런 저런 활동을 시간이 나는 대로 탐색하기도 한다. 반면 사회참여활동 탐색과 실천에서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던 참여자들은 강한 자아와 호기심, 뚜렷한 선호 등의 개인적 기질과 성향이 배경으로 작용했다. 이들의 탐색과정과 실행은 ‘자신의 모습’을 찾기 위한 여정이었고, 따라서 그 과정이 자발적이고 개인화된 유형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또한 형제순위나 아들을 우선으로 하는 집안 분위기 등 성장과정도 이들의 사회참여유형과 관련이 있었다. 특히 오빠와 남동생 사이에 ‘끼인’ 딸인 경우 남자형제의 대학교육을 위해 진학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중년이 된 지금도 ‘못 배웠다’는 마음 속 응어리에서 자유로워지지 못한 상태이다. 학력에 대한 열등감은 배움에 대한 강한 욕구와 적극적으로 활동을 찾아다니는 행보의 동기로 나타났다. 베이비부머 세대가 태어난 시기는 우리나라에서 교육열과 자녀교육에 대한 투자가 눈에 띄게 높아지던 때였으나 강한 남아 선호와 가부장적인 인식이 여전히 존재하던 시기였다. 가부장적 시대에 태어나 아들에 비해 교육과 모든 부모 지원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딸의 ‘희생’과 ‘양보’, 그리고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감내했던 성장과정으로 인해 ‘공부할 때를 놓친’ 아쉬움과 함께 ‘공부에 대한 열망’은 채워지지 않는 부족함으로 남아있다. 이들의 성장배경은 특정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이기 보다는 베이비부머 세대가 태어나고 성장했던 시대의 한 단면이다. 특히 여성의 교육기회가 적었던 사회경제적 배경으로 인해 많은 여성 베이비부머들이 경험했거나 공감할 수 있는 문제이다. 그러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사회참여, 특히 교육참여활동을 계속 탐색하는 과정 또한 취미여가활동의 유행과 마찬가지로 사설기관에서 교육형 강좌를 경쟁적으로 개설하고 유도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하게 될 우려가 있다. 교육에 대한 욕구는 강한 ‘내적’ 사회참여동기가 될 수 있으나 중년기 후반에 있는 여성 베이비부머들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외부’

교육에 의존해 내면의 욕구를 추구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둘째, 여성 베이비부머들은 강한 사회참여 욕구를 가지고 있었다. 꾸준히 취미여가활동에 참여하는 사례들이 많았으며, 이들은 당시 유행하는 활동을 따라 계속해서 새로운 활동에 참여하는 경향을 보였다. 즉, 중년기를 통해 시작, 발전, 유지된 취미여가활동이 일상적 생활의 한 단면이 되어 있으며, 그만큼 유행과 트렌드에 민감하다. 이러한 현상으로부터 여성 베이비부머 세대가 노년기에 진입했을 때의 사회참여는 지금의 노인 세대와는 매우 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온라인 동호회활동 참여는 이들이 디지털 사회에서 통용되는 문화적 이점을 누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온라인 활동은 시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노인의 신체적 제약을 완화시켜 줄 수 있다. 더구나 디지털 기술은 지속적으로 진화되고 있어 앞으로 디지털 문화 혜택과 참여방식은 이들이 노년기에 진입했을 때 더 활성화될 것이다. 따라서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년기 사회참여 유형 또한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여가활동에 대한 높은 기대감으로 놀이나 휴식의 개념 이상으로 지속적인 성장의 의미로 보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Sperrazza et al.(2010)의 주장과 같이 여성 베이비부머의 취미여가활동이 앞으로 질적, 양적으로 달라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이들의 삶에서 많은 시간을 차지하고 있는 취미여가활동, 종교활동 등은 결국 인간관계의 맥락에서 시도되고 지속되고 있었다. 즉, 활동을 하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인간관계를 만들기도 하며, 친구관계를 유지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같은 취미여가활동에 참여한다. 사회참여활동은 기존의 인간관계를 유지하거나 새롭게 만드는 방편이 되며, 인간관계는 이들에게 사회적 지지의 원천이 된다. 나아가 사회적 지지 및 사회관계망은 이들의 현재 및 미래의 삶에서 유용한 사회적 자본이 될 수 있다. 특히 노년기에는 일과 사회적 역할이 감소하면서

사회참여활동이 가장 보편적인 사회적 자본이 되며, 인적 자본 및 경제적 자본의 감소를 대체해줌으로써 삶의 질에 기여할 수 있다.

여성베이비부머는 가족부양의 책임이 줄어들면서 봉사활동 참여 의사를 가지고 있다. 현재 봉사활동을 하지 않으나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의사를 표명했던 사례는 사회적으로 봉사활동 또한 취미활동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유행처럼 인식되어 자신도 해야 된다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봉사활동기관의 문을 두드렸으나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는 반응에 입구에서부터 ‘문이 닫히는’ 경험을 한 사례는 봉사활동을 통한 사회참여의 기회가 더 다양해질 필요성을 제기한다. 여성베이비부머들이 성장한 시기는 컴퓨터도 없었던, ‘전문화 쪽으로’ 배우고 훈련받지 않았던 시대였으나 결혼과 자녀 양육으로 중년을 훌쩍 넘기는 사이에 사회 변화의 흐름을 다 놓치고 나니 ‘봉사도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닌’ 현재에 이르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가족이 어느 정도 홀로서기가 된 지금은 ‘시간이 많기’ 때문에 봉사활동을 할 여유가 있고, 하고 싶은 사회참여의 한 방식이 되었다. 따라서 중년기 또는 노년기의 봉사활동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들에게 다양한 봉사활동의 문이 열려 있어야 한다. *Isham et al.(2006)*에 의하면 자원봉사활동이 노년기의 네트워크 감소를 대체하면서 사회적 자본을 증가시킨다. 특히 봉사활동은 지금까지 접하지 않았던 사람들과 만나고, 새로운 일과 환경을 경험하는 기회가 될 수 있어 사회적 자본의 확대에 이어질 수 있다. *정순돌 외(2013)*의 연구에서 여성 베이비부머는 남성에 비해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도 현재 취미 여가활동에 집중된 여성 베이비부머의 사회참여활동을 봉사활동 등으로 다변화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므로 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예를 들면 중노년층이나 은퇴자를 위한 노후설계의 일부로 취미활동이나 일자리 연계 뿐 아니라 봉사활동에 대한 홍보와 교

육이 필요하다. 봉사활동을 원하는 개인의 경력과 자질에 따라 봉사활동을 노력봉사형, 재능기부형과 같이 다원화하고 이를 필요로 하는 자원봉사단체,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는 네트워크 등 사회적 인프라가 조성되어야 한다.

셋째, 연구참여자들이 현재의 시점을 사회참여를 정리하거나 축소하는 단계로 규정하는 것은 자신이 노년기를 앞두고 있음을 인식하기 때문이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이들이 곧 맞게 될 노년기의 사회참여는 중년기에 비해 축소되고 자신의 에너지, 경제력 등 자원으로 감당할 수 있는 범위로 모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동시에 자신이 원하는 삶의 방향, 즉 본질에 더 충실해질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결과는 노년기의 활동과 적응에 관한 기존 이론과 차이를 보인다. 적응이론과 유지이론에 의하면, 일, 자원봉사, 여가활동 등의 사회참여는 노년기의 불가피한 변화에서 오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적응을 용이하게 할 뿐만 아니라 노년기의 건강 및 수명과 밀접하게 관련되며 삶의 질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Luoh and Herzog, 2002*를 정순돌 외, 2013에서 재인용). 활동이론에서는 노년기의 사회적 고립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한 중년기의 라이프스타일을 유지하고 활동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김종인·김윤정, 2013*). 이러한 차이는 연구대상과 연구방법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나 후속연구에서 더 심도 있게 자료 조사되고 분석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이들의 인식은 베이비부머가 자신의 사회참여를 노년기와 연결시켜 고민하고 계획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사회참여 역시 전 생애주기를 통해 생활계획의 일부로 계획되어야 할 것이다.

축소시킨 사회참여는 남편과 공유하는 취미활동으로 자리를 내준다. 이처럼 가정 밖에서 찾았던 중년기의 사회참여가 안으로 들어와 남편에게 초점을 맞추는 현상은 여성 베이비부머들이 향후 노년기 부부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배우자는 노년기에 겪게 되는 다양한 위기로

부터 사회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존재이며(박주희, 2016), 특히 베이비부머 세대는 가족주기의 변화와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배우자와 생활하는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부부관계 만족도가 이후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친다(정경희 외, 2011; 한경혜, 2010). 반면 은퇴 이후 꿈을 이루기 위해 새로운 도전을 계획하고 있는 두 명의 사례는 베이비붐 세대가 이전 세대에 비해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사고방식과 생활의식을 가지고 있어 노년기를 자아실현의 기회 또는 제 3의 인생의 시작으로 생각하며 적극적인 활동으로 노년기를 보내고자 하는 의식이 강하다고 한 견해(Lasslet, 1991; 정순돌·이현희, 2012)와 유사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변화의 방향은 다양하고 귀결점도 다를 수 있으나 변화를 모색한다는 것은 여성 베이비부머들이 가족생활주기에서 전환의 시기에 있으며 노후를 앞두고 전반적인 생활 속에서 자신의 사회참여활동 또한 재정비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재정비와 전환이 부부의 노후 준비와 노후생활설계의 맥락에서, 그리고 자신의 인적 자본 및 경제적 자본을 재배분하는 자원관리의 일부로 탐색된다면 노후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여성 베이비부머의 사회참여활동의 현상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도되었으나 연구참여자들이 취미 여가활동, 종교활동, 교육참여활동, 봉사활동 등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개인화된 활동 이외에 시민단체 및 정치단체 참여나 공익활동 등에 참여하지 않았다. 따라서 사회참여활동에 대한 특징적인 사례가 부족하며, 이들의 사회참여가 삶에서 갖는 의미의 다양성에 대한 기술과 분석이 미흡한 한계가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여성 베이비부머의 개인화된 사회참여가 남성 혹은 다른 연령집단과 차이를 갖는지를 비교하기 위해 남성 집단과 비교, 연령집단별로 비교를 시도할 수 있다. 또한 사회참여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는 취업활동에 대한 심층면접 결과를 제시하지 않은 제한점이

있다. 대상자의 선정 및 면접과정에서 취업활동을 의도적으로 배제시키지 않았으나,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3명의 대상자들도 자신의 일과 파생되는 인간관계 등을 다른 사회참여활동 및 사회적 관계와 특별히 연관 지어 진술하지 않았으므로 최종적으로 이들의 사회참여 중 취업활동에 대한 기술 및 분석을 제시하지 않았다. 후속연구에서는 취업자와 비취업자의 사회참여활동, 취업자의 취업활동과 다른 사회참여활동, 또는 베이비부머의 은퇴 전후의 사회참여활동을 비교하는 주제를 시도한다면 광범위한 맥락에서 사회참여활동의 다양성에 대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참 고 문 헌】

- 1) 강소랑·문상호(2012). 가족관계 사회자본이 중·고령자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한국행정학보, 46(3), 271-298.
- 2) 강은나·김혜진·김영선(2012). 베이비부머의 노년기 근로지속의사 및 근로형태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55), 159-182.
- 3) 강현정(2012). 베이비붐 세대의 사회활동참여 여부가 사회통합감에 미치는 영향, 노인복지연구, 57, 429-448.
- 4) 김순미·고선강(2012). 중년기 가정의 세대 간 경제적 자원이전과 노후생활 준비,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6(2), 59-76.
- 5) 김영란·주재선(2010). 베이비붐세대 남녀 특성 비교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6) 김유정(2009). 중년 부부의 삶의 의미: 코오리엔테이션 모델 적용,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7) 김종인·김윤정(2013).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 사회참여 의향 예측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14(2), 655-663.
- 8) 김주현(2009). 노인의 생산적 활동 참여와 생활만족도, 노인인력개발포럼, 114-141.

- 9) 김지훈·강옥모·문수열(2013). 베이비부머의 사회적 자본 인식과 사회적 자본 형성간의 관계 분석: 자원봉사 및 기부활동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40(3), 25-50.
- 10) 김진영·송예리아(2012), 여가활동의 질과 건강의 관계, 보건과 사회과학, 32, 15-144.
- 11) 남순현·김미혜(2014). 베이비부머의 여가중심 라이프스타일, 은퇴준비 및 부부 여가활동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34(1), 183-203.
- 12) 박주희(2016). 베이비부머 세대의 가족특성이 노후준비수준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20(4), 1-17.
- 13) 방하남·신동균·이성균·한준·김지경·신인철(2010). 한국 베이비붐 세대의 근로생애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14) 배문조(2009). 중년기 성인의 노인에 대한 태도와 노후준비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9(3), 1107-1122.
- 15) 서지원(2012). 베이비부머 가계의 경제구조 및 경제적 만족도 분석,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6(1), 41-66.
- 16) 신창식·최수일(2010). 노년기 여가활동과 사회자본 및 삶의 만족 관계, 호텔관광연구, 12(3), 173-189.
- 17) 신연희·한경혜·김호기·김병후·김혜영·박경숙(2010). 위기의 베이비붐 세대, 사회적 해결책은 있는가?,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18) 신호창·노형신(2010). 고령화 사회 대비 효과적 고용정책 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토대 연구: 연령대별 인식차이를 바탕으로, 커뮤니케이션학 연구: 일반, 16(1), 5-40.
- 19) 어성연·조희금·고선강(2010). 전문직 미혼 남녀의 만혼현상에 대한 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4(2), 1-19.
- 20) 여미영(2009). 중장년층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노후준비에 관한 연구, 대구한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1) 이홍직(2009). 노인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자본 특성을 중심으로, 한국사회과학연구, 25(3), 25-42.
- 22) 장유미(2011). 노인일자리사업 참여가 사회적 자본 변화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3(2), 261-289.
- 23) 장지연·신동균·신경아·이혜정(2009). 중고령자 근로생애사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24) 정경희·이소정·이윤경·김수봉·선우덕·오영희·김경래·박보미·유혜영·이은진(2010). 베이비 부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 25) 정경희·오영희·이윤경·박보미(2011). 베이비 부머의 삶의 다양성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 26) 정순돌·이현희(2012). 가족특성과 노후준비의 관계: 베이비붐 세대와 예비노인의 비교, 노인복지연구, 58, 209-232.
- 27) 정순돌·성민현(2012). 연령집단별 사회적 자본과 삶의 만족도 관계비교, 보건사회연구, 32(4), 249-272.
- 28) 정순돌·김성원(2013). 베이비부머와 예비노인의 신체적 노후준비 영향요인: Andersen 과 Newman 모델의 적용, 노인복지연구, 59, 37-256.
- 29) 정순돌·박현주·오은정(2013). 베이비부머의 은퇴 후 희망 노후생활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노인복지연구, 62, 289-316.
- 30) 정호성·강성원·문외솔·박준·손민중·이찬영·이은미·이민훈·박변순(2010). 베이비붐 세대 은퇴의 파급효과와 대응방안-주요국(미·일) 비교 포함, 삼성경제연구소.
- 31) 조성숙·서훈(2011). 우리나라 중년 남성과 여성의 노후에 대한 인식 차이 연구: 베이비붐 세대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22(4), 707-717.

- 32) 조영희(2011). 베이비부머 세대의 인적자원관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16차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45-60.
- 33) 조운주(2008), 자원 봉사를 하는 노인의 심리적 안녕감 : 참여 노인의 생성감과 가족의 지지를 중심으로, 한국생활과학회지, 17(2), 91-205.
- 34) 차성란(2012).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미래 사회적 자본: 베이비붐 세대의 집단의 특성을 중심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6(1), 67-83.
- 35) 통계청(2014). 2014 혼인·이혼통계
- 36) 한경혜·이정화·Ryff. C.·Marks. N.·옥선화·차승은(2003), 한국 중년기 남녀의 건강상태 및 건강 관리 행동 : 성별, 연령집단별 차이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1(1), 213-229.
- 37) 한경혜(2010). 한국의 베이비부머 :라이프코스 와 생활세계에 대한 이해, 2010년 한국노년학회 학술대회자료집
- 38) 한동희(2014). 여성노인의 사회자본에 대한 탐색적 연구, 사회과학연구, 25(3), 479-500,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39) 홍성희·박인숙(2014). 성인자녀와의 지원교 환이 중년부모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8(1), 69-91.
- 40) Bourdieu, P.(1986). The forms of capital. In J. G. Richardason ed., Handbook of theory and research for the sociology of education New York, Greenwood.
- 41) Burt, R. S.(2007). Brokerage and Closure: An Introduction to Social Capital. Oxford Journals, 23(5), 666-667.
- 42) Coleman, J. S.(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S), S94-S121.
- 43) Costa, D. L., Kahn, M. E.(2001). Understanding the decline in social capital, 1952-1998. NBER Working Paper, 82-95.
- 44) Hsu, H.(2007). Does Social Participation by the Elderly Reduce Mortality and Cognitive Impairment?, Aging and Mental Health, 11(6), 699-707.
- 45) Ingen, E.(2008). Social Participation Revisited: Disentangling and Explaining Period, Life-Cycle and Cohort Effects, Acta Sociologica, 51(2), 103-121.
- 46) Isham, J., Kolodinsky, J., Kimberly Garrett(2006). The effect of volunteering for nonprofit organizations on social capital formation: Evidence from a statewide Survey, Nonprofit and Voluntary Sector Quarterly. 35(1), 367.
- 47) Laslett(1991). A fresh map of life: The emergence of the Third age, Harvard University Press.
- 48) Lochner, K. Kawachi, I., Kennedy. B.(1999). Social capital: a guide to its measurement. Health and Place, 5, 259-270.
- 49) Mammen, S., Bauer, J.W., Lass, D.(2009). Life Satisfaction Among Rural Low-Income Mothers: The Influence of Health, Human, Personal and Social Capital, Applied Research Quality Life 4, 365-366.
- 50) Newton, K.(1997). Social Capital and Democracy,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40(5), 575-586.
- 51) Portes, A.(1998). Social Capital: Its Origins and Applications in Modern Sociology. Annual Review of Sociology, 24, 1-24.
- 52) Sperrazza, L., & Banerjee, P.(2010). Babyboomer and Senior: Understanding their leisure values enhances programs, Activities, Adaptation and Aging, 34, 196-215.
- 53) Venuri, A. W., Grove. J. M., Wilson. M. A., Burch Jr. W. R.(2011). A Tale of two scales: Evaluating the Relationship Among Life Satisfaction, Social Capital, Income, and the Natural Environment at

Individual and Neighborhood Levels in Metropolitan Baltimore. *Environment and Behavior*, 43(1), 3-25.  
54) Whitbourne, S. K. (2001). The physical aging process in midlife : Interactions with

psychological and sociocultural factors. In M. E. Lachman(Ed), *handbook of midlife development*, 109-155. New York : John Wiley.

- 투 고 일 : 2016년 12월 1일
- 심 사 일 : 2017년 1월 4일
- 게재 확정일 : 2017년 2월 22일